

아버지

(자상하게)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머니

(우아하고 상냥하게)

네가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랑한다, 우리 딸.

언니

(차분한 투로)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길 바라.

동생

누나,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잘 지내자. 항상 고마워.

각자 준비한 선물을 내미는 가족들. 주인공의 앞으로 선물 상자가 쌓인다. 선물을 건네주며 자신을 둘러싼 가족을 둘러보며 매우 행복해하는 주인공.

주인공

(상기되어 기뻐하며)

다들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너무 기뻐요.

그림 같은 구도로 가족들 모두 주인공을 둘러싼 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짓는다. 서로의 어깨를 안아주고 친근하게 기대며 산발적으로 오가는 축하와 감사. 그 순간, 울리는 전화벨 소리. 잠시 정적이 흐른다. 가족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본다.

.

.

.

할아버지

열 여덟 생일이란 인생에 단 한 번 뿐인 날인데...

그런 특별한 날 내게 네 생일 케이크를 나눠줘서 고맙구나.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미지



